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意 奉仕 誠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TEL. 3673-2851~3
568-6651~2
ISSN 1227-7053 FAX. 568-6653
등록일:1988년2월19일 e-mail : kfpa8769@chollian.net

〔月刊〕 第145號 THE FISHING PORT NEWS 2000年 1月 25日(火曜日) 〔1〕

새천년 어항어촌 발전방향 제시 등 사업 확정
밝고 아름다운 꿈 실현 위해 새롭게 시작키로

한국어항협회 2000년도 정기총회
손정식 회장 차기회장에 만장일치 추대

한국어항협회는 1월14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회의실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00 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함께 임원선출과 관련, 차기 회장에는 손정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감사에는 조홍제(주식회사새건설 회장)·이환범(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사장) 현 감사가 연임됐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새 천년 어항어촌의 발전방향 제시 △어항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강화 △어항환경 정화사업의 중점적인 추진 △회원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보호 △철저한 목표관리와 혁신적인 조직경영 등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손정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 천년엔 새 천년에 걸맞게 협회를 새롭게 만들고 사고의 틀도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식기반사회, 정보혁명 시대에 맞게 협회를 업그래이드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손정식 회장은 또 "새 천년에는 깨끗하고 풍요한 바다, 꽃과 푸르름이 가득한 해변, 아름답고 낭만적인 어촌,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을 실현하는 이상 어항어촌을 반드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항인들이 단합하고 협동하여 "밝고아름다운 꿈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1월14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회의실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회장에 손정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감사에는 조홍제(주식회사새건설 회장)·이환범(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사장) 현 감사가 연임됐다.

제5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李恒圭 씨

정부는 지난 1월14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항규(사진) 한국선급 회장을 임명했다.

이항규 신임 장관은 지난 1996년8월 해양수산부 출범 당시 제1차관보를 지냈다.

이항규 장관은 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과 차장을 거쳐 지난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국민에게는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우리의 어촌을 언제나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어촌 주민들은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도시인들은 추억과 낭만을 간직할 수 있는 어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다짐했다.

원만한 성격에 부하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온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항규 장관의 부친은 7-10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의사 출신 고 이병주씨이며, 부인과 아들도 의사이다.

□ 신임 이항규 장관 주요약력

△1938년 충남 공주 출생 △57년 서울고 △61년 연세대 법학과 △76-81년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장, 해운항만청 내항과장, 기획예산담당관 △81-84년 교통부 진흥과장, 수송관리과장 △86-90년 해운항만청 운영국장, 재무관리관 △91-92년 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 △92-95년 인천·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95-96년 해운항만청 선박국장 △96. 1 해운항만청 차장 △96. 8-97. 1 해양수산부 제1차관보 △97. 2-2000. 1 한국선급 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또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 발전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감사패 수여자 명단

△이종만 주식회사새건설 대표이사 △정공일 주식회사 한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조화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국중택 국일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극 주식회사문원사 대표이사 △김하섭 선박검사기술협회 관리본부장 △조사연 조흥공영주식회사 부사장 △이광표 금광기업주식회사 전무이사 △이종학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전무이사 △김명조 삼부토건주식회사 상무이사 △이근복 동광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 △정성준 주식회사삼건사 상무이사 △황덕환 부흥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 △박태화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 이사 △김창중 동화건설주식회사 업무과장

정기총회 회장 인사말씀

깨끗하고 풍요한 바다, 꽃과 푸르름이 가득한 해변
아름답고 낭만적인 어촌,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 실현

정보혁명 시대에 걸맞게 협회를 업그래이드

孫井植 會長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한국어항협회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처럼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한국어항협회가 고고의 소리를 지르며 태어난지 13년, 특수법인으로 역사적인전환을 한지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세기 1백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어항협회의 역사는 말그대로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동안 어항인의 위상이 대내외에 드높아지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계당국의 전폭적인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모든 여건이 불충분함을 번연히 알면서도 앞만 보고 달려온 협회 운영에 대하여 불평한마디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준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세기 우리나라는 고난과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20세기 벽두를 장식한 일본제국주의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광복,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은 우리를 숨쉴틈 없는 질곡의 늪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났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돼 199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란 구호 아래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마침내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혹은 샴페인을 일찍터트린 탓인지 지난 97년의 IMF사태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면서 커다란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는 경제회복의 동참을 호소하여 그 엄청났던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에 이미 IMF체제를 탈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우리 수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절대빈곤에서의 탈피라는 대명제 아래 식량자급과 외화획득을 위해 시작된 증산위주 정책은 1970년대 대대적인 양식기술의 개발 보급 그리고 어선 동력화와 대형화 및 원양어장 확대 개척 등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모처럼 꽃을 가득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화학정책의 후유증으로 연안해역의 오염,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성장위주의 공업화·도시화로 우리 수산업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1990년대엔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완전개방, UN해양법 발효로 인한 어장상실과 어자원 감소 어장 황폐화 등으로 이제 우리의 수산업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한 세기 우리나라의 역사와 수산업의 현실을 되돌아본 이유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위기에 처할때마다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마치 잡초처럼 아무리 밟혀도 되살아나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저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자 폴 쿠루그먼이 '불황 경제학'이란 저서에서 말한 "오늘의 좋은 평가가 내일의 위기를 막아 주지는 못한다"는 경고는 지금 우리 어항인 모두가 몇번씩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면에 계속)

동정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7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UN NGO 밝은 사회 클럽' 모임에 참석, 18일에는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을 예방하고 수산현안을 논의, 이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신년인사회에 참석, 21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관한 농림해양수산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월3일 수협 강당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거행, 12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단체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겸한 신년교례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에 참석, 7일에는 경영자협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14일에는 광주국악진흥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월례회에 참석, 19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8차 이사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1월3일 광주매일신문사 시무식을 거행, 4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에 참석, 14일에는 광주농고총동창회 이사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이어 전남건설협회 신년 하례식을 거행, 17일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 20일에는 전남건설협회 중부권협의회 총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에 참석, 7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10일에는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7일 원주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 출장 이어 울산 무룡고등학교 신축현장에 출장, 20일에는 제주도 서귀포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출장.

인 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공보관 최장현 △안전관리관 서정호 △해양정책국장 이용우 △수산정책국장 안국전 △어업자원국장 박재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김영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갑숙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성직 △국방대학원 파견 양병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한준규 박덕배 △국외훈련 파견예정 강무현 △해양수산부 김성수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심의관 김형남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장 박성욱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장 박영철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장 김윤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처 파견예정 이광로(1월3일)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남춘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진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황수철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민장근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원청재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장 문해남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 유상정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장 주성호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장 박종록 △해운물류국 물류기획과장 나승렬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방기혁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장 이선준 △수산정책국 무역진흥과장 박종국 △수산정책국 어업기술인력과장 유병수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장 김영규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장 손부일 △어업자원국 원양어업과장 손재학 △어업자원국 국제협력과장 우예종 △국립수산진흥원 총무과장 김석진 △국립수산진흥원 교수부 교학과장 이진주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서병규 △국립해양조사원 관리과장 오병철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성백식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장 최영섭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오순복 △국립해양조사원 부산해양조사사무소장 윤우용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장 나택균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김영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추교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장황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이문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장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익수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조병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장영준 △세종연구소 파견 이인수(1월8일)

□서기관·사무관급 전보 △장실 김광룡(행정사무관) △안전관리관실 안전계획담당관실 정진관(행정사무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재연(행정사무관) 박관돌(행정사무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이주형(행정사무관) 정복철(행정사무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손봉호(행정사무관)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실 김완규(행정사무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박경철(행정사무관) 허삼영(행정사무관) 이상문(행정사무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이안호(행정사무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장성식(행정사무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신연철(행정사무관) 박준홍(토목사무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이상욱(행정사무관) 강용석(행정사무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임현택(행정사무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한관희(행정사무관) 오신기(행정사무관) 조창규(행정사무관) △해운물류국 물류기획과 이병주(행정사무관) 정창원(행정사무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개선과 이상일(행정사무관) △항만국 항만정책과 곽한호(서기관) 박승기(시설서기관) △항만국 항만개발과 이상억(행정사무관) 박홍남(토목사무관) △항만국 민자계획과 안상열(행정사무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박호근(서기관) 강인구(행정사무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남광률(행정사무관) 김상도(행정사무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양명석(토목사무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김준석(행정사무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김동주(수산서기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최철진(수산사무관) △어업자원국 원양어업과 박광열(서기관) 김태기(수산사무관) △어업자원국 국제협력과 채진규(서기관) 김창균(행정사무관) 서장우(수산사무관) △해양수산부 윤종호(행정사무관) 김양수(서기관) 권석창(서기관) △국립수산진흥원 박성우(수산사무관) 우병화(선박사무관) 김주련(어촌지도관) △국립해양조사원 이천희(행정사무관) △국립수산물검사소 홍효선(행정사무관) 홍순문(수산사무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송지명(행정사무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6호선장 최재석(선박사무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임송학(행정사무관) 이경희(행정사무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신수균(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정영화(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종호(행정사무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류시열(토목사무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구양희(선박사무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윤경철(행정사무관) 정태욱(토목사무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김시준(토목사무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연영진(시설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출장소장 장홍선(행정사무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최진식(토목사무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심명보(행정사무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홍승호(토목사무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윤석홍(행정사무관) 편재환(행정사무관) 오연국(행정사무관)(1월21일)

■ 차기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우리나라 어항·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구랍 31일 한국어항협회 김창규 어항청소선 기관장(어항 903호)이 강진군수로부터 바다청소 및 적조관계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취 임

▲김창수씨(전 주식회사화인주택 대표이사)는 최근 칠원Eng주식회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9-1번지 금강빌딩 301호, 전화번호 : 522-7171

주소변경

▲김한규씨(한국라이닝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최근 자택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6번지 이매촌 성지아파트 701-1501호로 변경했다.

▲류제웅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는 최근 자택주소를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73번지 신정5차 현대아파트 504-1602호로 변경했다. 전화번호 : 2604-0759.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회장 정윤삼)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사장 황광웅)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천금석)

■개인

▲김동원씨(동아상호신용금고 회장)

▲김용배씨(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김종봉씨(전 국립수산물검사소 서기관)

▲김진열씨(전 수산청 과장)

▲손영수씨(전 한국어선협회 검사이사)

▲오세범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전무이사)

(1면에서 계속)

그동안 우리 어항인들의 희생정신으로 어항산업이 대과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의 풍성한 말 칭찬에 현실안주를 도모하려다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에 죄를 짓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올해 우리 한국어항협회의 주요사업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새 천년 어항어촌의 발전방향 제시, 둘째, 어항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강화, 셋째, 어항환경정화사업의 중점적인추진, 넷째, 회원 공동이익 증진과 권익보호, 마지막으로, 철저한 목표관리와 혁신적인 조직경영으로 지식기반 사회, 정보혁명 시대에 맞게 협회를 업그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리 거창한 구호나 목표도 실현이 되지 않으면 휴지장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새 천년엔 새 천년에 걸맞게 협회를 새롭게 만들고 사고의 틀도 새롭게 혁신하기를 어항인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와함께 우리 어항인들이 왜 단합하고 협동하여야만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밝고 아름다운 꿈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 천년에는 깨끗하고 풍요한 바다, 꽃과 푸르름이 가득한 해변, 아름답고 낭만적인 어촌,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을 실현하는 이상 어항어촌을 반드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한 다음 자기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어항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새 천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수중침적폐기물분포도 첫 제작

어항·항만 환경의 효율적 관리 기대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수중침적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에서 부산간 남해안에 대한 수중침적폐기물 분포도를 만들었다.

이번에 마련된 폐기물분포도는 1999. 4. 19~11.19까지 남해안의 항만, 어항, 강하구 등 주요해역 47개소를 대상으로 양방향음파탐지기를 사용하여 바다밑에 침적된 폐기물을 조사·분석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분포도는 47개 항만(어항)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항만 도면에는 항만의 기본현황, 수중침적폐기물 추정량, 수중침적폐기물 분포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가 컴퓨터의 화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CD로도 제작되어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바다밑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데는 물론 어항·항만환경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어항·항만을 깨끗이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남해안 수중침적폐기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 오염이 심한 곳으로 밝혀진 여수 국동항과 경남 통영항에 대한 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여 총 1,140톤의 바다밑 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0년에는 동·서해안에 대한 폐기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폐기물 오염 우선순위에 따라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999년 사업비 10억보다 10배나 증가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2000년 맞이 사이버 행사 성황리에 마감

해양수산부는 2000년 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1999. 12. 31부터 2000. 1. 11까지 CYBER이벤트 '새 천년 보물섬을 찾아라' 라는 인터넷 게임을 실시하여 해양수산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물론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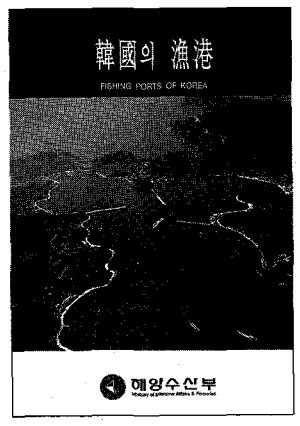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최근 역사적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 2010 세계박람회 등 해양수산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중에서 선정된 100문제를 맞추는 일명 빙고게임으로써 행사기간 중에 2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순서로 100명을 선정하여 2000. 1. 14 공개 추첨한 결과 팬티엄급 컴퓨터 당첨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인 백경실씨가, 부산-제주 여객선 왕복 승선권은 임효순(서울), 정용호(부산), 이상길(부산), 김남웅(서울) 등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 국민의 관심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충실히 하고 CYBER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어항' 제4집 발간

36개 1·3종어항을 한 눈에



한국어항협회는 해양수산부 용역사업으로 강원도 임원항, 전북도 위도항 등 36개 1·3종어항을 항공사진 촬영하여 '한국의 어항' 화보 제4집을 발간했다.

화보에는 36개 항의 전경사진과 함께 계획평면도, 건설현황 그리고 인구 어선 양륙량 등의 항세가 수록되어 있어 어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의 어항' 화보 발간이 어항개발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국의 어항 화보에 수록된 어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임원항, 경북도 죽변항 등 4개항, 경남도 능포항 등 7개항, 전남도 국동항 등 13개항, 전북도 위도항 등 4개항, 충남도 외연도항 등 2개항, 제주도 도두항등 5개항 등 36개 항이다.

수의계약 대상 종합평점 80점 이상

조달청 평가기준 강화

앞으로 정부시설공사 가운데 상하수도접합, 조경, 포장, 토공사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점수가 80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경쟁촉진을 위해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지난 14일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의계약대상 공사가 종전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해올 경우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으로 구분해 수의계약사유를 점수로 평가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의 60점보다 20점이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와함께 전차공사의 잔여기간이 금차공사와 25%가 중복될 경우 수의예약으로 시행해온 것을 40%로 올려 실제적인 작업상 혼잡이 있을 때만 수의계약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회 발주되는 공사기간이 12개월일 경우 종전에는 3개월이 중복되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4.8개월 이상이 되어야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24개월일 때는 6개월에서 9.6개월로 3.6개월이 길어진다.

조달청은 하천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하천축제 하천호안공사 등으로 공종을 명확히 하고 상하수도접합, 조경, 포장, 토공사 등도 제외대상에 포함시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만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수의계약 평가기준 중 일반사항평가항목에 매출액 순이익 및 총자본회전율 항목을 추가해 PQ(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자가 2개사 이상일 때는 해당사각각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대상 공사가 공동도급사일 경우 부실시공 제재처분 및 부실벌점의 감점은 대상자중 감점이 가장 많은 자로 평가하는 등 부실벌점의 평가도 PQ수준으로 보완했다.

낙후 어촌 종합개발 박차

75곳 환경개선 연차 추진

해양수산부는 부산기장 등 75개 어촌권역에 대해 올해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낙후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부산기장 등 75개 권역에 올해부터 생산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권역별로는 전남지역 34개소를 비롯 △경북6 △경남14 △부산2 △인천4 △울산2 △강원4 △충남2 △전북2 △제주5개소 등 전국 75개 낙후어촌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중 30개 지역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육역지역의 경우 어촌환경시설과 유통가공시설,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연안지역에는 어선계류시설과 해안시설, 어촌관광시설 등을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역에는 수산자원조성시설 등 어업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이들 75개 어촌권역개발사업에 모두 2천6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국고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45%)와 자부담(5%)으로 각각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어촌권역의 경우 최근들어 생산기반시설 낙후로 어업소득원이 줄어들고 있어 어업소득원 증대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촌종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전국 1천200여개 어촌계를 160개 권역으로 묶어 개발키로 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인천 옹진백령지역 등 85개 권역은 이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금액기준 변경

수의계약으로 시행돼온 소액공사 가운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일반경쟁으로 전환돼 낙찰자가 선정된다.

조달청은 최근 일반, 전문, 전기통신, 소방 등 공사별로 달리 적용해 오던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금액기준을 이같이 변경해 1월1일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다.

이에따라 일반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됐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미만의 공사만 수의계약으로 시행되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건·강·하·게·삽·시·다

눈을 혹사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영양학

기업의 컴퓨터 리제이션에서 비롯 정보화 사회의 물결은 일반 가정에도 워드프로세서가 보급될 정도의 기세를 떨치고 있다. 그런 상황과 함께 OA기계에 의한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직접 OA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워드프로세서 문자나 팩시밀리의 복사 등으로 눈을 피로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손으로 쓰는 것이 많았지만 그런 서류나 보고서에서 점차 작은 문자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문자 자체는 깨끗하게 되어 읽기는 쉬워졌지만 확실히 눈의 부담이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작은 문자나 OA기계의 화면을 보고 눈이 피곤해지는 것은 시신경의 피로에 의한 것으로 이것이 극단적인 경우가 되면 망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

옛날에는 병리학을 연구하는 의학자가 현미경을 너무나 들여다본 탓으로 중심성 망막염에 걸린 경우에 속한다. 이것은 요컨대 눈의 핀트가 맞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사물을 보기 힘들게 되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피로든 그것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쉬는 것으로, 눈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곤란한 것은 인간의 눈은 잘 때 외에는 쉴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교적 눈을 쉬게 하는 상태인 '먼 곳을 보는'것이 필요해진다.

눈의 기능은 원래 원근 양용인데 도시인들은 자칫하면 가까운 것만 보는 '근시안적'생활을 하기가 쉽다. 더구나 나쁜 것은, 가장 눈을 잘 쉬게 해 주는 색채인 나무나 풀 꽃 같은 녹색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우선 무엇보다도 눈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것이다. 일정 시간 워드프로세서나 작은 글자를 들여다보았다면 될 수 있으면 나무의 녹색이나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신경의 긴장을 풀어 주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영양적인 배려도 잊지 않는다면 더욱 더 효과를 올릴 수가 있게 된다.

야맹증이 비타민 A의 부족에 의한 병이란 것은 잘 알고 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B는 눈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영양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간이다. 눈이 지쳤구나 하고 생각되면 안약을 넣는 것보다는 간을 먹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밤하늘의 별도 바라보면서 포장마차에서 참새 고기도 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황·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9〕

第3章 基礎工

3.6.3 합성수지계매트

(1) 부설공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합성수지계매트 부설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를 그림 3.6.2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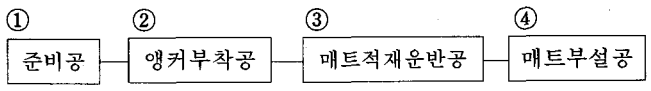


그림 3.6.2 합성수지계매트 부설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2) 시공방법

① 준비공

임시보관상태의 매트를 작업장에 펴서 치수 등이 설계시방의 범위임을 확인한다.

② 앵커부착공

매트는 비중이 1.2전후로 가볍기 때문에 부설직후의 안정을 위해 웨이트 앵커를 설치한다.

매트 단부에는 웨이트 앵커 부착용으로 자루모양으로 가공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RC파일 등을 삽입, 고정하여 웨이트 앵커로 한다.

③ 매트적재 운반공

웨이트 앵커가 부착된 매트는 원통모양으로 말아서 앵커와 일체로 하여 태선에 적재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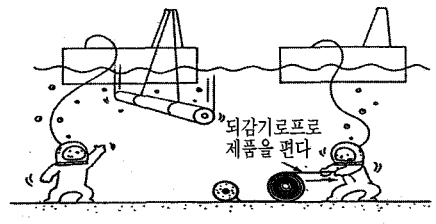
④ 매트부설공

크레인이 부착된 태선으로 매트를 소정위치에 내려놓고 잠수부가 매트를 되말아서 부설한다.

매트와 매트의 접속은 이음로프나 연결쇠로 한다. 부설한 매트에는 사석이나 블록 등을 임시로 놓아두고 웨이트 앵커의 보강을 한다.

상기한 부설방법을 그림 3.6.3~3.6.4에 도시한다.

a. 원통모양의 매트를 소정의 위치에 내려놓고 되감기 로프로 편다.



b. 매트와 매트의 접속은 이음로프·연결쇠로 한다.

c. 접속종료후, 매트위에 사석 또는 블록 등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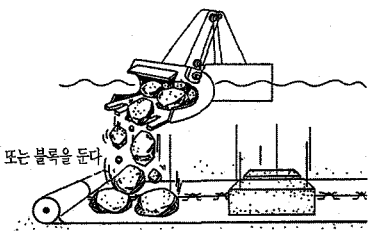


그림 3.6.3 합성수지계매트의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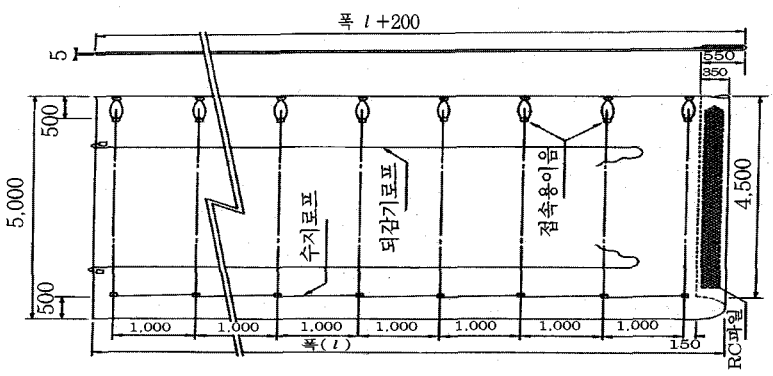


그림 3.6.4 합성수지계매트의 부설상황

2000년부터 달라지는 법규 및 제도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 해양수산인의 편의를 도모

해양수산부는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수산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관련 법규와 제도(총 8개 법령, 24개 제도)를 변경하여 2000년부터 시행함.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의 항만공사소요비용 예치제도를 폐지함.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전담 대표이사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강화함.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해수면에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유처리에 대한 인도·인수증 작성·보존과 폐기물의 운반·배출, 방제업·유창청소업의 휴·폐업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2000년부터 달라지는 경제법규 및 제도

♣ 생활정보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명 및 시 행 일	담 당 과 명 전 화 번 호
1	민간부문의 항만공사비용 예치제	○민간부문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도록 함	〈폐 지〉	항만법 (공포후 6월 경과후 : 현재 국회계류중)	항만정책과 (3466-2295)
2	수협개혁	○법인어촌계 설립 인가	○법인어촌계제도 폐지	수산업협동조합법 (2000. 7. 1)	수산정책과 (3466-2332)
3	〃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고의 또는 경과실	〃	〃
4	〃	○지구별조합의 사업영역 -제1, 2금융업무	○지구별조합 제2금융업무만 취급	〃	〃
5	〃	○독립사업부제 -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 및 인사, 예산권 등 전권행사	○완전한 독립사업부제 -경제·신용사업 대표이사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예산권 등을 행사하고 소관사업 책임경영	〃	〃
6	〃	〈신 설〉	○중앙회가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우선출자 발행	〃	〃
7	〃	〈신 설〉	○자본잠식과 누적적자가 심한 부실조합 통폐합 추진	〃	〃
8	어업인 연대 보증 채무의 채무보증 전환	○어업인이 어업용 자금 대출시 어업인등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어업용 대출자금의 어업인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어업인의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전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000. 1. 1)	수산정책과 (3466-2334)
9	이식 수산동식물 병충해 감염검사	○검사기관 : 국립수산진흥원 ○관계법령 : 수산 1 법 79조 제1항제5호 및 수산자원보호령제11조의 3	○검사기관 : 국립수산물검사소 ○관계법령 : 수산물검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수산물검사법 (2000. 7. 1)	유통가공과 (3466-2415)
10	수산물 조정관세 세율조정 및 적용방법 변경	○종가세 방식	○종량세 가미한 "선택세" 방식 (7개 품목)	관세법 (2000. 1. 1)	무역진흥과 (3466-2431)
11	내수면개발지역 지정	○내수면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수면관리자가 개발의무를 짐 ○수면관리자의 개발의사가 없을시 대신 개발할 수 있도록 함	〈폐 지〉	내수면어업법 (공포후 6월 경과후 : 현재국회계류중)	양식개발과 (3466-2384)
12	어업의 면허·허가 등 처분권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
13	허가어업의 종류	○자망어법 등 6개어업	○투망어업과 어전어업 폐지 ○낭장망어업과 각망어업을 신설	〃	〃
14	어업우선순위	〈신 설〉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내수면어업계, 법인, 기타 단체 -어업경영 및 종사한 자 등	내수면어업법 (공포후 6월 경과후 : 현재국회계류중)	양식개발과 (3466-2384)
15	수면사용에 대한 동의	○어업면허시 농지개량시설만 협의하고, 그외 어업면허 및 허가, 신고시 수면관리권자의 동의서 첨부	○신청자의 수면사용 동의서 첨부를 폐지하고, 행정관청이 수면관리자와의 미리 협의하도록 함	〃	〃
16	내수면어업계	〈신 설〉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과 운영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
17	어업제한	〈신 설〉	○공익상 필요한 경우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원보호, 국방·군사상 필요시 -다른 법률의 어업제한시·이식승인을 받지 않고 양식 또는 방류시	〃	〃
18	유해어법 사용금지	〈신 설〉	○내수면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발물, 유해물 등 사용금지 -발반자가 소유·소지한 어획물, 폭발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내수면어업법 (공포후 6월 경과후 : 현재국회계류중)	양식개발과 (3466-2384)
19	위반자 벌칙	○무면허 등 어업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 ○무신고 어업시 6월이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 벌금	○무면허 등 어업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무신고 어업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
20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신 설〉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 이내수면인 경우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수상레저안전법 (2000. 2. 9)	해경 해상안전과 (032-888-6075)
21	폐기물운반 배출신고	○운반선등록자가폐기물을 운반·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적재 24시간전에 관할해양 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폐 지〉	해양오염방지법 (2000. 2. 9)	해경 감시과 (032-883-9043)
22	폐유처리인도 인수증 작성	○폐유를 수거한자가폐유를 처리할 경우 인도자 및 인수자는 인도·인수증을 작성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작성 일로부터 1년으로 함	〈폐 지〉	해양오염 방지법 (2000. 2. 9)	해경 감시과 (032-883-9043)
23	방제업·유창청소업 휴·폐업신고	○방제업·유창청소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폐 지〉	〃	해경 방제과 (032-883-1846)
24	기름 등 폐기물자가 처리시설 설치 신고	○해양시설 및 선박소유자가 그 시설 또는 선박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육상에 설치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함	〈폐 지〉	〃	해경감시과 (032-883-9043)

♣ 생활정보